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4, 예레미야의 고백과 기도,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4과,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기도, 1부입니다.

다음 3과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과 언급된 일련의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잠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 자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지자들을 연구하면서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선지자들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작업과 연구로부터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달라스 신학교에 있을 때 Dr. Bob Chisholm이 나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강의와 이 비디오에서 공유하는 많은 것들은 제가 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살펴보고 여러 면에서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제게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역의 맥락에서 보입니다.

제가 구약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자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야기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상호작용, 또는 다음과 같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때때로 매우 교훈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신약성서의 원리들이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의 실재와 그분이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방식은 구약성서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실제로 이 구절에 사용된 용어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영감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예레미야가 고통, 사역의 어려움, 삶의 고난, 그가 느꼈던 반대와 박해에 대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시편에서처럼 탄식입니다.

J. Andrew Dearman은 고백에 관해 훌륭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작점으로 읽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의 놀라운 은사 중 하나가 거절과 박해로 인한 투쟁으로 지치고 우울할 때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에 대한 열심과 예레미야의 경우, 그의 예언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열심이 인생의 순조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제자들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사역 중에 거절과 우울로 인해 지쳤거나 반대와 박해를 느낀 적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 사이에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보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순수한 감정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도 번개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언급된 이 기도와 고백은 여섯 개의 다른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9절에서 23절;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이러한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 메시지와 신탁 전체에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보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 중 몇 가지를 읽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샘플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에 거기 표현된 애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애가의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어머니여, 당신이 나를 온 땅에 다투고 다투는 사람으로 낳았으니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빌려준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꼭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온 땅에 다툼의 근원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온갖 학대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냐 환난의 때와 환난의 때에 내가 대적 앞에서 너를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이 북쪽에서 오는 쇠와 놋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재물과 보물을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온 지경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값 없이 약탈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라. 내 진노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불는다.

그리고 영원히 타오르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에 관한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그토록 많은 어려움에 빠뜨린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15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돌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관용으로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내가 너희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줄 알아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나이다

나는 향락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분노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의 말씀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섭취했다. 나는 그것들을 내 영혼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내 살아있는 표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파티 참석자들과 함께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엄청난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느냐? 내 상처가 고침을 거부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 같고, 마르는 물 같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빠르게 물로 채워질 수 있는 유다의 와디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날씨가 덥고 건조해지면 그 물이 완전히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더운 여름 동안 사막에 있는 와디 중 하나와 같았습니다. 거기엔 물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되돌아볼 때 그 이미지와 그 비유는 나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내 백성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구절에서 유다가 메마르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했던 신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이며, 그 신들이 그들에게 제공할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안전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물이 없어요.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그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속이는 시냇물이라 거기에는 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끊어지는 물과 같겠느냐? 이것은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일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다른 것은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더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읽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샘플을 제공해주세요. 예레미야가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들으시고 나의 대적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하고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는지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기도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칼의 권세에 넘겨 주소서. 그들의 아내는 자녀가 없고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부하들이 역병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젊은이들은 전투에서 칼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약탈자가 그들 위에 임하실 때에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놓으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무너지게 하십시오.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행하소서." 이는 마치 주님과 같아서 진노와 보복을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을 심판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즉, 구약성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의인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어, 우리가 때때로 시편을 읽을 때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 제 학생들과 함께 할 때, 어,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요 아니면 나쁜 기도인가요?? 예레미야가 원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습니까? 어, 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작업하고 이번 수업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것이 매우 의로운 기도라고 믿는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 내 생각에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절대적인 자유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접근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시편 62편 8절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에 사용된 이미지는 물로 가득 찬 그릇, 누군가가 그것을 비우는 모습, 아마도 주님께 전제로 드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행복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때때로, 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분노,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절대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어, 저는 그 구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의 물을 얻기 위해 적진 뒤에 갔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물을 땅에 쏟으며 이르되 내가 그것을 마시면 피를 마시는 것과 같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내용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단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겉치레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형적 형상을 입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키로 예배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편,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단조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예배를 볼 때, 저는 그것의 많은 부분이 장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축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교회에 가면 격려 집회처럼 들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네,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조뿐만 아니라 장조뿐만 아니라 단조로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 심지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제가 겪은 가장 가까운 경험 중 하나는 9-11 테러 직후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졌던 교회 모임과 기도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단순히 찬양만 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와 슬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가 사역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다룰 때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시편에서는 특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Federico Villanueva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모국인 필리핀에서 열린 사역 회의에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화재로 70명이 사망했다.

백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특히 비극적이던 것은 당시 호텔의 손님 대부분이 미국 복음주의 단체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사역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던 목회자와 기독교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 . 어, 페데리코가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세 명의 엄마,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었던 파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려와서 화재가 일어난 상황과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본 목사님 중 한 분은 음, 페데리코에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코는 구약에서 우리가 시편의 애가나 예레미야의 애도를 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비극과 재난을 겪으면서 가져야 할 반응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번은 개인적인 예인데, 어, 남편을 잃은 후 병원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님을 아는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신자로서 대단한 일입니다. 음, 신자로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틀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 제 인생은 1978년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에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청년부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우리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에 있었는데 방금 친구를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작품과 그곳에 있던 모든 별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별 대신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신학적 순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애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 일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델인가?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기도 신학의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 중 하나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소돔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랑 논쟁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동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여 45로 줄였습니다. 그 숫자는 40, 30, 20이 되었고 마침내 10으로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협상을 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야, 여호와께서 금송아지를 본 후어나 백성이 정탐꾼의 말을 들은 후에 물러가라 하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벨론 위기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신학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이 작고 작은 예언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예레미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서두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보셨나이까? 주님, 아직 눈치 채지 못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의 악에 대해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기서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오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아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내 백성의 사악함과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논쟁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중 일부는 그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데 어떻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이용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과 하나님이 다시 하박국에게 와서 이르시되 하박국아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한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여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들은 피 위에 건설된 성임이니라. 그 토론 중에 주님은 결코 하박국에게, 하박국 보라,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조용히 해.

멈추다. 묻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박국을 인도하셨고, 그 목적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 중 하나가 나오는 장의 끝 부분에 도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외양간에 짐승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나무에 감람이 없나이다.

나는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논쟁하여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하박국은 결코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야구 팬이다. 그 점은 이미 몇 번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야구가 코치와 감독에게 다른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심판들과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계에 나와서 심판에게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리틀 리그 코치로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아빠, 저를 창피하게 만드네요'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야구에서 코치나 감독의 권리 중 하나는 나와서 심판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논쟁하는 방법에 대한 매개 변수와 지침이 있습니다.

모자를 뒤로 젖히거나, 심판의 면전으로 들어가거나, 그의 얼굴에 담배 주스를 뱉거나, 심판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판에게 특정한 이름을 부르면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노력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에는 합당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논쟁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 질문할 때와 단순히 우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불평하고 논쟁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을 때, 우리에게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모세,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원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원에게 와서 그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논쟁할 권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시편 기자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당신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맏소사, 저를 구하지 않으면 다음 주 합창단 연습에 한 명이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믿는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에 대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들의 손에 내가 고통받는 이 상황은 부당하다.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는 당신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 주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더 나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과정, 배움의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찬송가인 시편의 주된 장르는 애가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애가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시편에 나오는 애가에 나오는 유사한 유형의 기도, 표현,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시편 6장 6-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라고 말합니다.

매일 밤 나는 눈물로 침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울면서 내 침상을 적십니다. 슬픔 때문에 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이런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종종 극단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나는 그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에게 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종종 그들은 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애쓰곤 합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시편 기자가 적들의 반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의 고난과 그가 겪고 있는 적들과 반대를

묘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 매우 강력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치유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나오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 논쟁한 오랜 역사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왔던 오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콜라 자판기에 1달러를 넣고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붓고 우리 성격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간구하지만,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과 애가의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찬양으로 바뀌겠지만, 찬양의 말이 없는 시편 88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 우울함, 우울함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삶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은 종종 매우 외로운 직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언어를 가져오는 오랜

역사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게 들립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함, 위대함, 사랑, 자비로 이해하면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이그 브로일(Craig Broyle)은 시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표현이 60편 이상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 같으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터진 웅덩이를 따라갔지만, 여러 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꽤 강력한 비난입니다. Broyle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언어가 하나님을 소극적 방치로 비난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지적합니다.

시편 13편: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기도를 영원히 무시할 겁니까? 어디세요? 그러나 다른 때에는 시편 기자가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이 문제를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학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차적 요인을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시편 44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때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형벌 중 하나는 군사적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에 나오는 내용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배도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솔직한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를 버리고 모욕을 주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흠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람들을 사소한 일에 팔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이야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단지 적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주님.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시편 23편입니다. 기쁨 때나 축복할 때, 심지어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시편 기자는 묵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나를 보호해줄게.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정육점 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비난의 정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비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욥기 서두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가끔 그 사람이 꽤 가까워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5, 18장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자리에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욥기 13장 23-28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죄악과 죄는 얼마나 됩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주님, 제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어떤 종류의 죄나 제가 행한 일의 결과라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변화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훔날리는 나뭇잎을 겁주고 마른 겨를 쫓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거슬러 쓴 글을 쓰시며 내가 어렸을 때의 죄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지키시며 내 발바닥에 한도를 정하셨나이다 사람아, 썩은 것 같이, 좀 먹은 옷 같이 낡아가라.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탄임을 압니다. 욥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하나님에 관한 현실 중 하나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욥은 이 문제를 16장 1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시느니라 나는 편안했고 그는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내 목을 붙잡고 산산조각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는 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궁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신장을 베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내 쓸개즙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깨뜨릴 때마다 깨뜨려 주시고, 전사처럼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전사와 같아서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뭘 한거지? 그러므로 구약의 기도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도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다가 다시 경배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버리셨다고 비난하는 것보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른 성경구절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내 고통은 끝이 없나요? 어찌하여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낫기를 거부합니까? 거기에서 질문이 들리나요? 그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리나요? 나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낫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 같고, 마르는 물 같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면 구약성서에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오랜 기도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고백에서 주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진술 중 또 다른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고 예레미야는 20장 7절에서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적인 메시지나 이스라엘이 바알을 믿었고 바알이 그들에게 지옥이 되었던 기만적인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속이셨고 나도 속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파타(patah) 입니다.

파타 (patah)가 사용되는 다양한 문맥 과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 처녀를 유혹한 후 그녀와 결혼하도록 요구받는 남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동사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삼손을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신성한 회의 가운데 서 계시고 그의 사자들에게 가서 파타 로 가서 아합을 꺾어 전쟁에 나가도록 설득하는 이야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꺾어 속이고 꺾기를 원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맥에서든 발견되는 동사의 모든 측면을 취하여 이 하나의 구절에 모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녀를 유혹하는 것, 남편을 유혹하는 것, 악인을 속이는 것 등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비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당신이 나보다 강해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몹이 반복해서 말할 것 중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단지 당신과 일대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강해요. 당신은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부르짖을 때마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폭력과 파괴를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종일토록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려면 그분을 아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모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일년에 한 번씩 그녀를 방문하고 그녀의 소파에 앉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 예레미야와 함께 앉아서 "예레미야, 치료가 필요해요"라고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기도 신학이 필요합니다. 너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수업을 들어야 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수업을 듣고, 진정한 기도, 진정한 투쟁,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레미야의 기도를 구약의 기도의 맥락에 두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도문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발견한 기도와 거의 그대로 일치하거나 적어도 구약의 다른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과 개념과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의 마지막 고백, 20장의 마지막 말씀인 14-18절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기 3장 3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며 주를 향하는 내 마음을 단련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어 도살의 날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십시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선지자는

여기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고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률에 명시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와, 그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적인가요? 시편 58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때에 기뻐하리로다. 불안한 구절이네요. 시편 58편 주님, 내 원수의 이빨과 송곳니를 뽑아 주십시오.

그것들을 물처럼, 길가의 민달팽이처럼 녹아 버리게 하소서. 그냥 사라지고 없애버리도록 놔두세요. 주님,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때 고통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시편 137편,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저주 언어와 성약의 문맥을 사용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저주는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복음의 적들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순교하여 죽임을 당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어 죄성에서 벗어났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보복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어 이르되 주여 우리 죽음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언제까지니이까 하더라 예레미야가 그의 적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과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언약의 반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여러 면에서 복음의 적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할 적절한 장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는 자식이 없게 하여 과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하들이 역병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에도 비슷한 기도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가혹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심판은 행악자의 가족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일부이며 정의를 향한 외침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언급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평할지라도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내 사정을 변호하리이다.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하는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모두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실했는데 내 삶은 비참하게 흘러갔습니다. 부자가 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기도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은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하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 발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마침내 아삽은 그것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욥의 대표적인 예를 끝으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신학은 잠언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학에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학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신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욥은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느냐?” 왜 그들은 늙어 권력이 강해지는가?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앞에서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눈앞에 있느니라.

그들의 집은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서 들으시는 이 모든 질문,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 다른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들으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마무리 지점, 이것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욥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이 시편의 애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 기쁨, 행복,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기도는 때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직하고 참된 기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14회기,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기도, 1부입니다.